

이주빈 “선배, 그 립스틱” 제목에 반해... 효주 행복하길”

“부족함 없는 역할, 그 결핍이 궁금했다”

극 중 화려한 패션, 실재론 ‘꾸안꾸’ 선호

“작품 준비중...새로운 캐릭터로 만날것”

“제목에 반했어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못할 강력함이 있었죠”

배우 이주빈이 JTBC 월화극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를 종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10일 서면으로 만난 이주빈은 “처음 대본 제안을 받은 게 1년 전인데, 어느새 마치게 되어 시원스럽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이기 때문에 끝났다는 게 아직 믿어지지 않고 아쉬워요. 하지만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아갈 효주를 생각하며 저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동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를 응원하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는 화장품 브랜드 ‘글라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맨스 드라마다. 이주빈을 비롯해 배우 원진아, 문은, 이현욱 등이 출연했다.

이주빈은 극 중 ‘글라르’ 창업주의 손녀이자 촉망받는 포토그래퍼 ‘이효주’ 역할을 맡았다.

모든 걸 누리며 제멋대로인 삶을 살아왔지만, 그 속에는 외로움이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글라르 마케팅팀 팀장이자 오빠의 친구 ‘이재신’(이현욱)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이별을 겪는다.

이주빈은 “초반 효주의 설정이 이후 여러 번 바뀌었지만, 큰 틀은 재벌 딸에 부족함이 없는 친구라는 점이였다. 그래서 뭔가를 준비한다기 보다는 부족한 것 없는 친구의 결핍을 궁금해했고, 그러한 영화를 많이 찾아봤다”고 밝혔다.

이어 “효주와 실제 저의 싱크로율은 사실 거의 없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과 결단력, 추진력 등 일에 대한 열정은 비슷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작품을 선택한 건 제목에 대한 끌림이 컸다고 했다. 이주빈은 “사실 먼저 대본과 역할을 제안받았는데, 처음엔 제목에 반했다”고 말했다.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못할 강력함이 있었어요. 대본을 볼수록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졌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역할이었고 부족함 없는 친구의 결핍을 가진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는 3회에서 ‘이재신’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친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장면을 꼽았다. 이주빈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장

면이었는데, 자라는 환경이나 배경보다 현재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중요시하는 효주의 마인드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극 중 이효주는 화려한 패션을 자랑한다. 반면 이주빈은 실제 자신은 ‘꾸안꾸(꾸민 듯 안꾸민 듯 자연스러운 모습)’ 패션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이효주는) 100미터 밖에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화려함”이라며 “너무 여성스럽지는 않게 화려함과 시크함을 적절히 섞은 패션이다. 주로 볼드한 액세서리, 과감하고 화려한 패턴과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줬다. 하지만 실제 저는 추리닝, 청바지, 니트, 후드 같이 ‘꾸안꾸’ 패션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이효주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주빈은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효주가 안타깝고 안쓰러웠지만, 이미 작품 안에서 (이재신과 이별한 뒤) 3년 후의 효주는 본인의 틀을 깨고 나와 남을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 밝혔다.

“효주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결단력에 세상을 보는 시야까지 넓어졌으니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다. 효주야,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아. 너 은근히 귀여워”라고 웃었다.

지난 2018년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으로 안방극장에 등장한 후 이주빈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 ‘조선로코 - 녹두전’, ‘안녕 드라큘라’, ‘그 남자의 기억법’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며 톱 톱 튀는 매력을 선보였다.

오는 24일 방송되는 tvN 단막극 ‘드라마 스테



이제 2021 - 러브 스포일러로도 시청자들을 만난다. 이주빈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작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번에도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만나게 될 것 같다. 많은 기대 부탁한다”고 밝혔다.



JTBC ‘로스쿨’, 다음달 14일 첫 방송

전대미문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 드라마

JTBC 새 드라마 ‘로스쿨’이 다음달 첫 방송 된다.

‘로스쿨’ 측은 10일 오후 4월14일 오후 9시 첫 방송 편성을 알리며, 메인포스터를 공개했다.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 드라마다. 피, 땀, 눈물의 살벌한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는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는 김명민, 김범, 류혜영, 이정은, 이수경, 이다윗, 고윤정, 현우, 김혜연, 오만석 등 배우들의 모습이 담겼다.

미묘한 표정과 눈빛을 보여주는 이들은 로스쿨에서 발생하게 되는 의문의 사건으로 인해 각기 다른 의문스러운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형법 교수 ‘양중훈’(김명민), 민법 교수이자 리걸 클리닉 센터장 ‘김은숙’(이정은), 로스쿨 원장 ‘오정희’(김혜연), 헌법 교수이자 부원장 ‘강주만’(오만석)이 로스쿨 교단에 선다.

이들의 전공, 출신, 교육방식은 매우 다르다. 검사 출신 양중훈은 ‘공포의 양크라테스’란 악명답게 지독한 ‘문답법’으로 학생들을 끝까지 몰아붙인다.

반면 판사 출신 김은숙은 탈권위적 소통과 교감을 통해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진행, 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오정희는 대법관 출신답게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로스쿨 발전을 위해 노련한 중용적 태도를 견지한다. 유일하게 실무가 출신이 아닌 강주만은 주입식 교육, 어려운 시험에 박한 점수로 안락을 추구한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면면 역시 각양각색이다. 경찰대,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한준휘’(김범)는 화려한 이력으로 수석 입학한 원톱이다.

또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너무나도 다른 두 명의 학생이 있다.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강솔A’(류혜영)와 법조계 금수저 ‘강솔B’(이수경)가 그 주인공이다. 강솔A가 강단과 끈기로 버티며 성장하는 홀수저의 반란을 꾀하는 반면, 엄마의 극성과 맞춤형 과외로 이 자리에까지 온 강솔B는 로시오패스(로스쿨+소시오패스) 전형을 보여줄 예정이다.

갑작스레 집안이 기울 뒤 로스쿨을 철저히 신분 상승 기회로 생각하는 ‘서지호’(이다윗)는 대항로법만을 목표로 악착같이 공부한다. 늘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미모의 소유자 ‘전예슬’(고윤정)은 부지런히 스테디를 쟁기며 캠퍼스클럽 로망을 꿈꾼다. 의사 출신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유승재’(현우)는 한참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제작진은 “냉철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장착한 로스쿨 10인방이 한자리에 모여 더할 나위 없는 법적 시너지를 완성해냈다”며 “믿고 보는 캐릭터 소화력으로 극을 빈틈없이 채워 나갈 배우들의 활약과 더불어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얽히고설킨 미스터리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이들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스쿨’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송곳’ 등을 연출한 김석운 감독과 서인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시지프스’ 후속으로 방송된다.

MBN 새 예능 ‘전국방방곡곡’ 다음달 3일 첫 방송

전국 방방곡곡 특산물 찾아 요리 대결 펼치는 프로그램



MBN 새 예능 프로그램 ‘전국방방곡곡’이 4월 3일 첫 방송된다.

‘전국방방곡곡’은 연예계 절친 손님들에게 의뢰를 받은 낭만 식객들이 맞춤형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특산물을 찾아야 외에서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4월 3일 오후 6시 처음 방송된다.

요리로 정면승부를 펼칠 출연진으로 배우 차태현, 장혁, 이상엽, 전 농구선수 현주엽, 전 축구선수 안정환, 전 야구선수 김태균이 출연한다.

출연진은 두 팀으로 나뉘어 제철 식재료를 위해 전국 각지로 떠나 숨겨진 동네 맛집을 찾고 요리 장인에게 특별 비법을 전수 받는다.

각 팀에서 ‘형 라인’을 맡은 차태현, 장혁, 현주엽, 안정환은 티키타카로 웃음을 보장한다. ‘막내 라인’으로 요린이(요리+어린이) 이상엽, 첫 고정 예능 프로그램 출연인 김태균이 예능 신생아로 거듭나는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연예계에서 소문난 출연진 친구들도 요리를 의뢰하는 초대 손님으로 등장해 예측 불가의 재미를 선사한다.

연우진 주연 ‘아무도 없는 곳’, 31일 개봉 확정

‘조제’ ‘더 테이بل’의 김종관 감독 신작이자 배우 연우진이 주연한 연우진이 주연한 ‘아무도 없는 곳’이 31일 개봉을 확정했다.

‘아무도 없는 곳’은 어느 이른 봄, 7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소설가 창석이 우연히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종관 감독의 신작으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록트를 통해 첫 공개되어 기대를 모았다.

김 감독은 “단 며칠 동안 한 명의 인물이 여러 사연을 통과해 나가는 이야기다.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상

태를 잡아내려 불확실하더라도 과감한 시도를 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창석 역의 연우진을 필두로 김상호, 이지은, 이주영, 윤혜리가 함께했다.

뉴스스

유재석 KBS 복귀작 ‘캠백홈’ 다음달 3일 첫방

이용진·이영지 MC

유재석의 친정 복귀작 KBS 2TV ‘캠백홈’이 편성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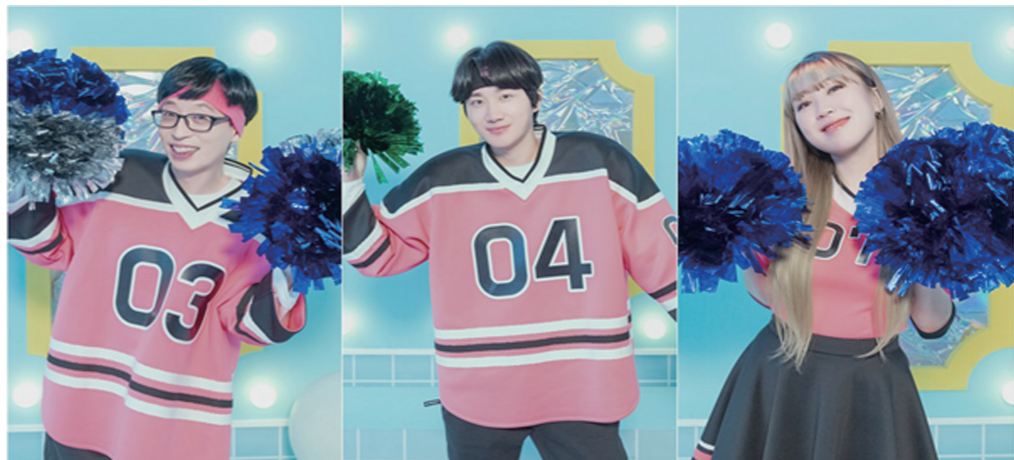
‘캠백홈’ 측은 10일 “‘캠백홈’이 오는 4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처음 방송된다”면서 편성 확정 소식을 전했다.

‘캠백홈’은 스타의 낯선 서울살이를 시작한 첫 보급자리로 돌아가 그곳에 현재 진행형으로 사는 청춘들을 만나고 응원을 전하는 리얼리티 예능이다.

유재석의 약 1년 만의 친정 복귀작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유재석에 이어 개그맨 이용진과 래퍼 이영지가 MC로 가세했다.

첫 회 게스트로는 마마무 화사와 휘인이 출



연한다. 지난 6일 진행된 녹화에서 화사-휘인은 가수의 꿈을 안고 상경해 첫 보급자리를 꾸렸던 옥탑 시절을 돌아봤다.

‘캠백홈’ 측은 “첫 녹화부터 3MC의 호흡이 적혀 있었다. 남다른 텐션의 유라인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